

2023. 4. 26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

공원여가사업과장	이은주	2133-9356
공원여가운영팀장	이보현	2133-9364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parks.seoul.go.kr/">http://parks.seoul.go.kr/</a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6쪽

### 서울의 공원은 사계절 내내 즐거워!... '예술품은 매력정원' 만나보요

- 서울시, 음악 정원투어·가드닝·미술 등 공원 6~7곳에서 연간 예술 프로그램 운영
- 톨립만발 서울숲, 최정원 작가와 함께하는 <음악이 흐르는 정원> 4월 27일(토) 16시
- 정원 투어, 정원 드로잉, 가드닝 프로그램 등 4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 예정

-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자연과 예술을 함께 만나는 방법! 서울의 공원에 해답이 있다. 서울시는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4월 27일 '음악이 흐르는 정원'을 시작으로 <예술품은 매력정원>프로그램을 11월까지 선보인다.
- 계절별 서울의 공원 풍경과 어우러진 뮤직콘서트 '음악이 흐르는 정원'은 4월 톨립이 만개한 서울숲을 시작으로 봄·여름·가을 4~10월 (8월 휴서기 제외, 7월은 야간행사로 진행) 총 6회 동안 진행한다.
- 첫 시작은 4월 27일 16시에 서울숲에서 만나볼 수 있다. 서울숲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정원 인플루언서 최정원 작가와

함께 4월의 봄과 어울리는 음악을 배경으로 한 뮤직토크쇼 ‘음악이 흐르는 정원 4월’이다. 이번 공연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정원문화와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원 프로그램에 대한 토크쇼가 함께 진행되어 정원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.

- 최정원작가는 정원 인플루언서로 ‘식물로 행복한 식물도 행복한 공간’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영 중이다. 다양한 식물과의 활동을 통해 식물문화, 정원문화를 소개하고 소통하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.
- 5월~10월의 ‘음악이 흐르는 정원’은 서울식물원(5월), 선유도공원(6월), 남산공원(7월), 북서울꿈의숲(9월), 아차산어울림정원(10월) 진행되며, 계절별 서울의 공원 풍경과 어우러진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될 예정이다.

□ 서울숲의 ‘음악이 흐르는 정원’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4월 26일 부터 10시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. 공공서비스 예약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현장에서 음악공연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.

□ 또한 서울의 공원이 품은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간 운영될 예정이다. 공원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하는 ‘매력가든 투어’, 서울의 공원을 주제로 한 화가의 드로잉에 참여하는 미술 프로그램, 지역 카페와 함께 선보이는 가드닝, 공원 속 추억사진 전시 등이 운영될 예정이니 자연과 정원, 예술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자.

- 매력가든 투어 : 선유요가(6월), 낙산풍류(9~10월), 꿈숲소란(9월), 아

차보루(10월)

- 미술이 펼쳐지는 공원 : 무료 드로잉북 도안 배포(상시), 서울식물원(5월), 남산공원(11월)
- 우리동네 가드닝(6~10월 예정), 공원 속 추억 전시(11월 예정)

□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“공원이 자연풍경만 즐기는 곳이 아닌 다양한 재미와 정원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 예술을 녹여 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.”며 “앞으로도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정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.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프로그램 일정 1부.  
2. 행사 포스터 및 이미지 1부.  
3. 예술품은 매력정원 Q & A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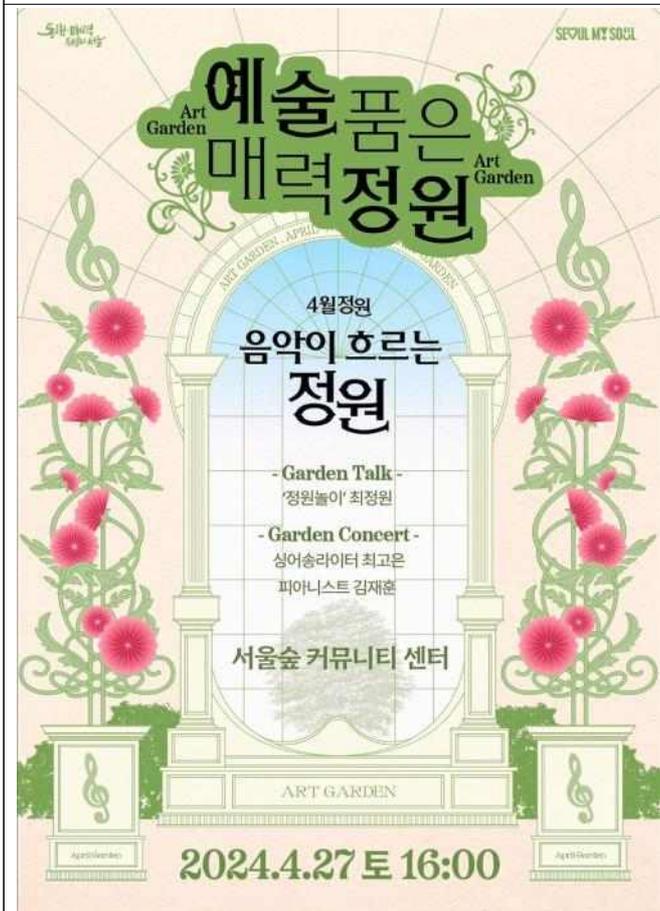
구 분	프로그램
<p>음악이 흐르는 정원 (4~10월, 8월 흑서기 제외)</p>	<p>- 봄·여름·가을 공원별 에서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음악회 - 4월 서울숲, 5월 서울식물원, 6월 선유도공원, 7월 남산공원(야간), 9월 북서울꿈의숲, 10월 아차산어울림정원 ※ 매월 셋째주 토요일</p>
<p>미술이 펼쳐지는 공원 (5월, 11월 예정) ※컬러링북 도안 상시(5월이후)</p>	<p>- 대표작가의 서울의 공원을 주제로 한 컬러링북 프로그램 및 그리기 도구 대여 - 5월 서울식물원, 11월 남산공원</p>
<p>매력가든 투어 (6~10월 예정)</p>	<p>- 공원 테마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입힌 서울공원 투어 프로그램 - 6월 국내 최초의 재생 생태공원 선유도의 '선유요가', 9~10월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낙산공원의 '낙산풍류' 9월 공원 스팟별 사운드를 채집하는 북서울꿈의숲의 '꿈숲소란' 10월 역사와 생태가 살아있는 아차산생태공원의 '아차보루'</p>
<p>우리동네 가드닝 (6~10월 예정)</p>	<p>- 지역 정원 활성화를 위한 가드닝 문화 프로그램 등</p>
<p>공원 속 추억 전시 (11월 예정)</p>	<p>- 서울의 공원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별 추억 사진 및 짤 공모전 전시 개최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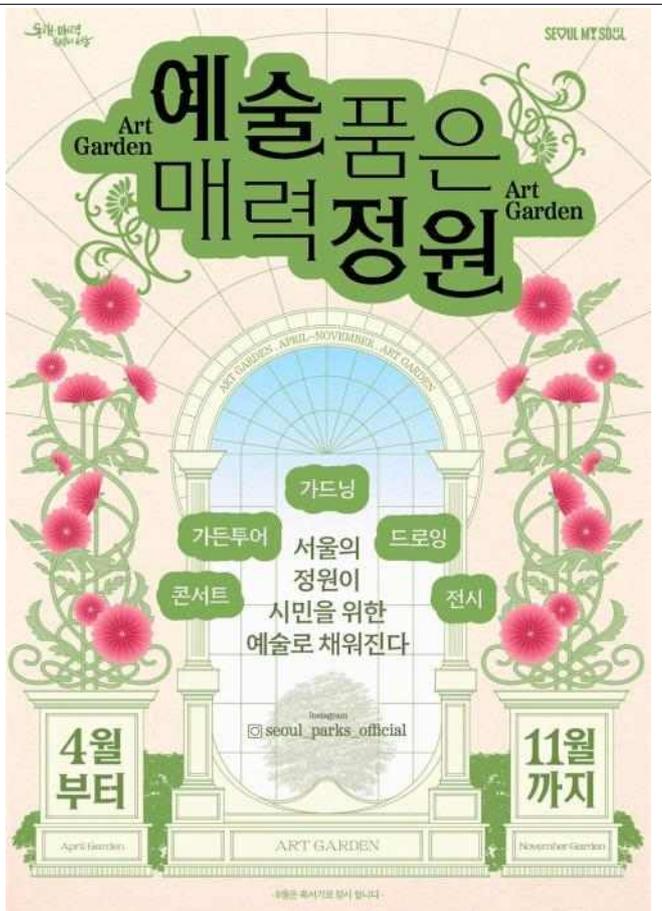
행사 이미지



행사 이미지



포스터



포스터

**|Q1| 각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**

- ◆ 4월 27일 ‘음악이 흐르는 정원’ : 시민 누구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(<http://yeyak.seoul.go.kr>) 사이트를 통해 4월 26일부터 선착순 50명 신청  
※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자유관람은 예약 없이 가능
- ◆ 그 외 프로그램의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(<http://yeyak.seoul.go.kr>) 사이트를 통해 접수 예정이나 각 프로그램별 기상 또는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

**|Q2| 음악이 흐르는 정원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?**

- ◆ 예술품은 매력정원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7일 서울숲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‘음악이 흐르는 정원’ 4월편이 진행되며, 5~10월 기간 동안 매달 셋째주 토요일(8월 제외)마다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며 팝, 재즈, 클래식 등 각 공원 및 계절에 어울리는 장르로 진행